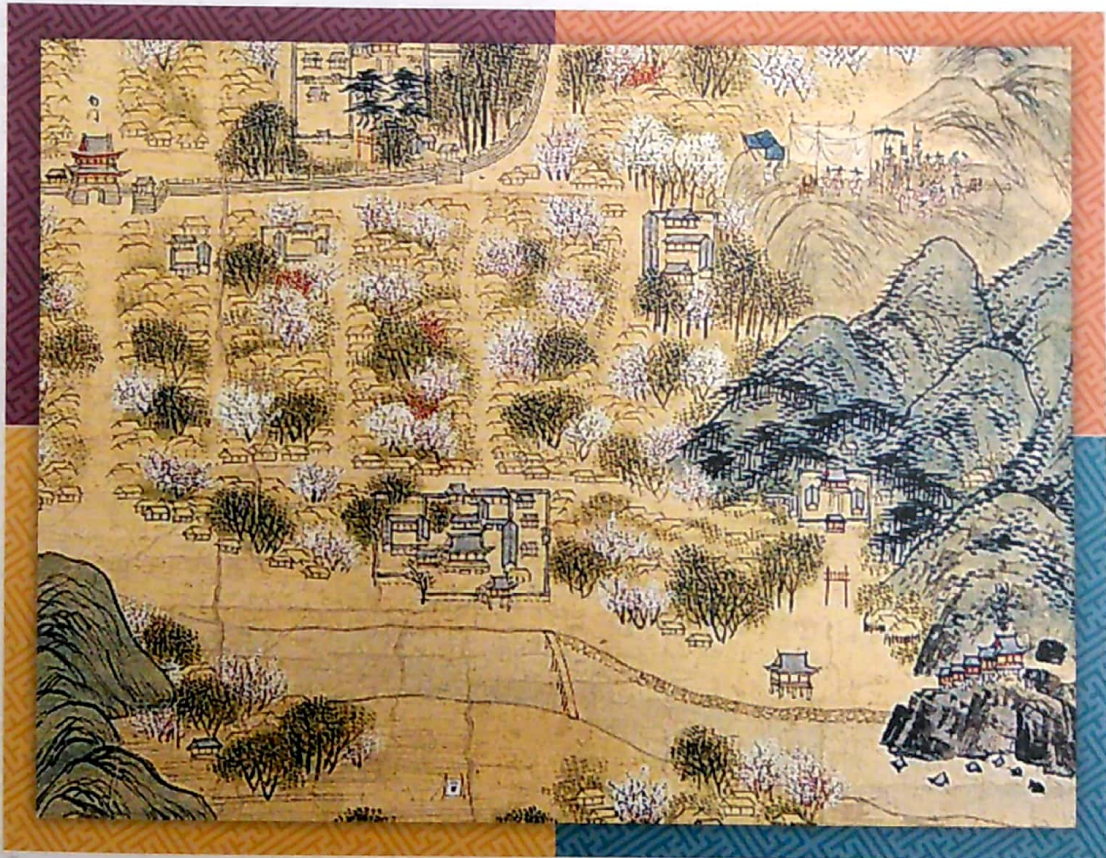


全州 歴史가 담긴 詩文集



전주문화원

전주 역사가 담긴 시문집

인 쇄 | 2017년 12월 25일

발 행 | 2017년 12월 30일

발행인 | 나종우

주 간 | 김진돈

번역자 | 안진희, 황안웅

편집인 | 김진돈, 서홍식

교정인 | 장선희, 김근아, 박은순

발행처 | 전북 전주시 덕진구 팔달로 340 - 30

Tel. 063-255-3360, Fax. 255-3370

인쇄처 | 신아출판사(063-275-4000)

* 이 책은 전주시에서 지원하는 사업비로 제작되었습니다.

전주 역사가 담긴 시문집

I. 전주부(완산)와 전라도 관련 시	19
II. 전주 부성안의 관청 건물	86
III. 고덕산성(高德山城) 만마관과 만경대 그리고 오목대	114
IV. 완산팔경의 하나인 옥류동의 한벽당	127
V. 임진왜란의 최고의 격전지인 웅치	142
VI. 전지산 아래의 덕진지와 공북루	144
VII. 쾌심정	150
VIII. 완산팔경 비비정	152
IX. 이후선이 지은 죽수정	159
X. 사간과 헌납이 만든 간납대(諫納臺)	164
XI. 기타	166

아름답네 풍패의 거룩한 이름
두 문의 머리 위에 휘황찬란해

洵哉豐沛號
輝赫二門頭

▷ 다산 정약용(1762~1836): 자는 미용(美鏞). 호는 다산(茶山)·사암(俟菴)·여유당(與猶堂)·채산(菜山). 근기(近畿). 남인 가문 출신, 정조(正祖) 연간에 문신으로 사환(仕宦)했으나, 청년기에 접했던 서학(西學)으로 인해 장기간 유배생활을 하였다.

그는 이 유배기간 동안 자신의 학문을 더욱 연마해 육경사서(六經四書)에 대한 연구를 비롯해 일표이서(一表二書: 『經世遺表』·『牧民心書』·『欽欽新書』) 등 모두 500여 권에 이르는 방대한 저술을 남겼고, 이 저술을 통해서 조선 후기 실학사상을 집대성한 인물로 평가되고 있다.

□ 점필재 김종직의 시

전주에서 삼월 삼일에 향음례와 향사례를 거행하다 全州三月三日行鄉飲鄉射禮

향음례의 남긴 법이 하루에 새로워지니
성대한 조정의 풍화가 무리에 뛰어나네
황화대 아래서 한창 수작을 하노라니
오만 눈들이 함께 주인과 빈객을 보누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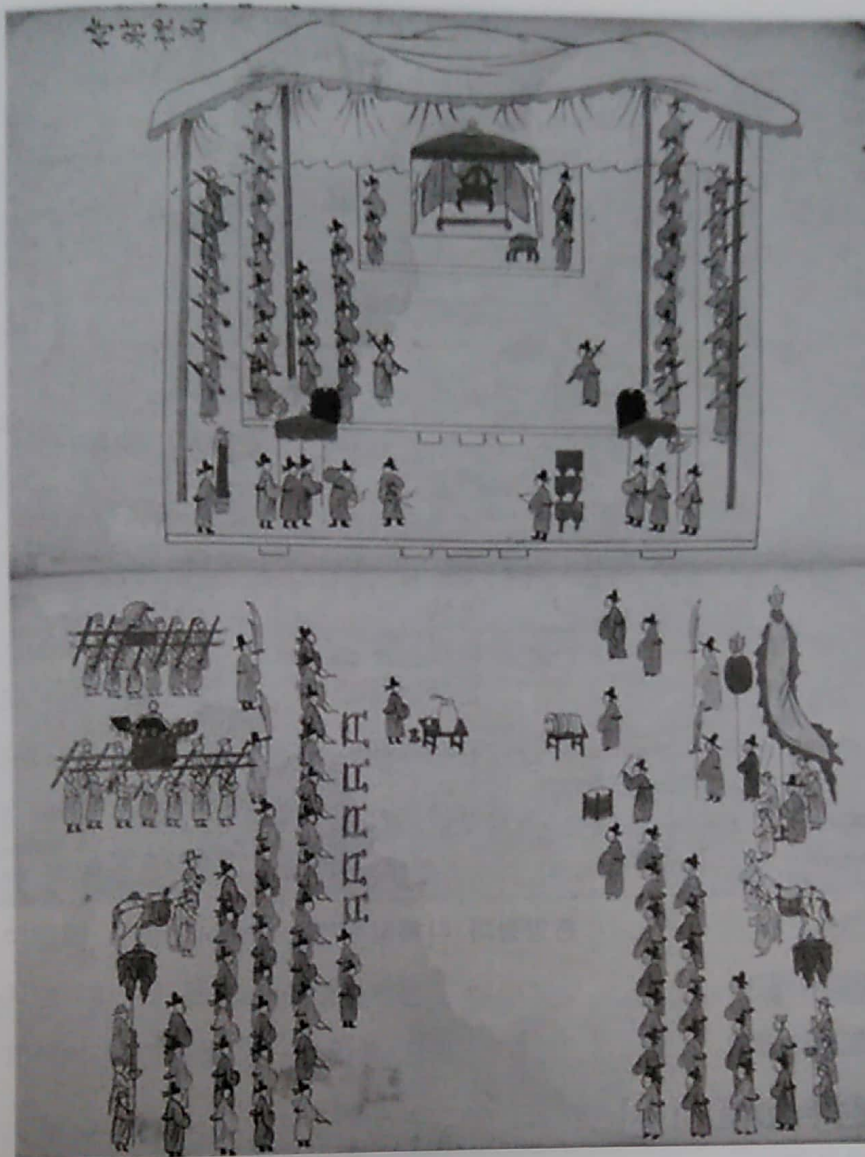
鄉飲遺謨一日新
盛朝風化冠群倫
黃花臺下方酬酢
萬目同看主與賓

오작의 예를 끝낸 다음 다시 서로 경계하고
사사가 머뭇거리며 말이 있어야 하는데
일거에 아울러 행한 게 참람한 듯하긴 하나
향인들이 어렴풋이나마 옛 의식을 아는구려

禮成五酌更相規
司射逡巡合有辭
一舉竝行雖似僭
鄉人髣髴識遺儀

애써 부르지 않아도 사수들이 모였는데
음양의 절차가 아직도 삼대풍²²⁾이 남았구나
채번곡 연주 끝내고 깎지 팔찌를 거두니

不勞徵召射夫同
揖讓猶存三代風
疊盡采蓂收決拾



향사례(규장각 소장)

충만한 기분이 행단 안에 있는 것 같도다

充然如在杏壇中

정히 따스한 봄 삼월이라 삼진날에
산꼭대기 화살받이에 북소리 은은하구나
유상곡수 놀이는 전혀 쓸데없는 일이라
양치²³⁾한 나머지에 즐거움이 그지없구려

正是青春三月三
岡頭射垛鼓籥籥
流觴曲水渾閑事
揚觴之餘樂且湛

22) 삼대풍: 하은주(夏殷周) 삼대의 풍속

23) 양치의 치(觴)는 술잔으로, 향사례를 마친 뒤에 주인이 상자(相子)를 시켜 빈(貧)과 대부(大夫)에게 술잔을 들어 올리게 하는 의식이다.